

보도시점 2024. 10. 7.(월) 11:00 (월요일 석간) 배포 2024. 10. 6.(일)

2024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 개최... 3년 만에 선언문 도출

- '제5차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2024년 11월 부산 개최)'에서의 플라스틱 협약 성안 중요성 강조하며, 회원국의 관심과 협력 촉구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3일(현지 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024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브라질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회원국 및 초청국*과 환경·기후·국제개발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 (회원국) 브라질(의장국),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아르헨티나, 사우디, 유럽연합(EU), 아프리카 연합(AU)

(초청국) 앙골라, 덴마크, 이집트,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아랍에미리트(UAE), 페루

**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중남미개발은행(CAF) 등

환경부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관계자로 구성된 우리나라 대표단(수석대표: 탄녹위 주대영 사무차장)은 이번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해양, 생태계서비스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하고, 주요 20개국 차원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보호지역 및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정부·지자체장이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등)과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지급하는 제도

우리나라 대표단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자연자산의 소중함을 체득하고, 생태계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돕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여 생태계 보호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증진시키는 우리나라의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빈번해지는 기상이변으로 기후 적응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후 취약국의 기후 탄력성 향상을 위해 기존 기후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의 수단으로써 순환경제 이행의 중요성을 비롯해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주기 관리체계의 마련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과 순환경제 관련 기술 혁신 독려를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이번 주요 20개국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이하 ‘INC-5’)를 앞두고, 장관회의 발언과 노르웨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주요 20개국 회원국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회원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주요 20개국 환경·기후 장관회의에서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장관회의 선언문이 도출됐다. 장관회의 선언문은 리우협약(Rio Conventions)의 정신을 되새기며,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 주요 20개국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주요 20개국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양 부문에서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의 조속한 비준 및 이행을 촉구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부문에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보급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기후 적응 부문에서는 회원국 내 경제·재정 정책에서의 적응 정책 주류화와 적응 자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부문에서는 전 과정에 걸친 순환경제 이행 노력 확대와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다.

* **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약

장관회의 선언문은 오는 11월 18일~19일 양일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결과물에 활용되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등 주요 환경·기후 분야의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 주요 20개국의 의견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이번 주요 20개국 환경·기후 장관회의 개최 시기에 맞추어 주한 브라질한국문화원은 브라질 리우주(州) 문화부와 파르케 라제(Parque Lage) 시각예술학교 및 한국 환경부와 협력하여 양국의 멸종위기종을 민화 느낌으로 표현한 대형 전시를 기획했다. 이 전시회는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파르케 라제 시각예술학교에서 열린다.

- 붙임 1. 주요 20개국(G20) 개요.
 2.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형섭	(044-201-6560)
	국제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최영선	(044-201-656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주요 20개국(G20) 개요

□ (참석 대상) G20 회원국 + 초청국 + 국제기구

① G20 회원국 : 세계 인구의 2/3, 세계 GDP의 약 85% 차지

구분	국가
G7 (7)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BRICS (5)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그 외 국가 (7)	한국, 호주, 튀르키예, 사우디, 인도네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지역공동체 (2)	EU(European Union), AU(African Union, '23년 가입)

② 초청국(Invitees) : 당해 개최국이 비회원국 중 대상국을 선정하여 초청

< '24년도 초청국 >

구분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			
국가	UAE	앙골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노르웨이	포르투갈	덴마크

③ 경제·국제개발·환경 분야 초청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s)

< '24년도 초청 주요 국제기구 >

UNEP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DP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IDO (The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WB (World Bank)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CAF (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and Caribbean)	UNESCO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CTAD (The United Nations Trade and Development)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연혁)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 이후, 현재까지 총 18차례 정상회의 개최

- 한국은 非G7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10년 의장국 수입
- '24년 의장국은 브라질이며, '25년 의장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 G20 정상회의 개최 연혁 >

회차	시기	개최국	개최 도시
제1차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
제2차	2009년 4월	영국	런던
제3차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
제4차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
제5차	2010년 11월	대한민국	서울
제6차	2011년 11월	프랑스	간느
제7차	2012년 6월	멕시코	로스까보스
제8차	2013년 9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제9차	2014년 11월	호주	브리즈번
제10차	2015년 11월	터키	안탈리아
제11차	2016년 9월	중국	항저우
제12차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
제13차	2018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제14차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제15차	2020년 11월	사우디	영상회의
제16차	2021년 10월	이탈리아	로마
제17차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제18차	2023년 9월	인도	뉴델리
제19차	2024년 11월 (11.18.~19.)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 (운영체제) G20 논의의 연속성·일관성 확보를 위해 '직전 + 현재 + 차기 의장국' 3국으로 구성된 트로이카* 체제 운영

* '세 필의 말이 끄는 마차'라는 뜻의 러시아어에서 유래된 용어

○ '24년 G20은 브라질('24년 의장국), 인도('23년 의장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25년 의장국)이 협력 운영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터키	중국	독일	아르헨티나	일본	사우디	이탈리아	인니	인도	브라질	남아공

┌ 2024년 트로이카 ┐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 개요

- (연혁) '19년 일본 가루이자와(Karuizawa)에서 최초로 환경·에너지 합동 장관회의 및 환경 부문 단독 장관회의 개최

* 에너지 부문 장관회의는 '15년(터키)부터 개최

- (연도별 주요 의제)

연도(개최국)	주요 의제
2019년(일본)	①자원효율성 향상, ②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③생태계기반 적응, ④기후변화에 대한 회복탄력적 인프라 구축
2020년 (사우디아라비아)	①토지 황폐화와 거주지 손실, ②산호초 보존과 해양 폐기물 저감, ③기후변화 대응
2021년(이탈리아)	①도시와 기후행동, ②지속가능한 회복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③파리협정 이행에 부합한 금융 흐름, ④에너지안보와 에너지 빈곤
2022년 (인도네시아)	①토지 황폐화 및 생태계 복원, 생물다양성 보존, ②통합수자원 관리, ③자원효율성 및 순환경제, ④해양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⑤기후변화 대응
2023년(인도)	①토지 황폐화, 생물다양성 보존 및 생태계 회복 가속화, ②지속 가능하고 기후 탄력적인 청색(blue) 경제, ③자원효율성 및 순환 경제, ④기후변화 대응
2024년(브라질) * (10.3., 리우데자네이루)	①기상 이변에 대한 예방적 적응, ②해양, ③생태계서비스지불제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 ④폐기물관리 및 순환경제

- (참석 대상) G20 회원국 + 초청국 + 환경·기후 분야 국제기구

※ 당해연도 G20 의장국이 초청국과 초청 국제기구를 선정

- (회의 방식) 세션 주제별 국별 발언 후, 장관 선언문(결과물) 채택*

- 장관 선언문 도출을 위해 연중 총 3~4차례의 실무작업반(Environment, Climate Sustainability Working Group, ECSWG) 회의 개최

* 마지막 작업반 회의를 장관회의와 연계 개최하여 장관 선언문(결과물) 최종 문안 도출 → 장관회의에서는 별도의 문안 협의 없이 국별 발언 후, 선언문만 채택